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삼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 유행으로 소중한 일상을 상실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적·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의 극복과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과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삼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말씀 드렸습시다만,

벼랑 끝 위기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용불안과 가계소득의 감소, 자영업자들의 매출 하락으로 민생경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특히나 시의 핵심 동력산업인 항공제조업은 고사 위기의 지경까지 내몰렸고,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상권의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설상가상 우리 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항공MRO 산업은 정부의 갑작스런 이원화 육성 전략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늘 속에 힘겹게 서 계시는 모습에 가슴 아픈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고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만족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900여 사천시 공직자들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시민의 고단한 삶을 지탱하고 우리 시의 핵심 전략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

현재 접종대상 전(全) 시민 접종률이 86.3%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72억원 규모의 「지역 경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일자리 및 복지, 생활안정, 제세 분야 등 9개 분야 3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대표 우주항공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진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역사를 새로 쓴 뜻깊은 성과들이 많았습니다.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우리 기술진이 주도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KF-21은 양산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시 항공기업은 10만 개의 일자리와 5조 9천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10월 21일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향한 첫 도전이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핵심부품인 1단 추진체 탱크가, 이 곳 종포산단에 위치한 KAI 우주센터에서 생산되었습니다.

KAI 우주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위성 조립장과 실험장을 갖춰 중대형 위성 36기를 동시에 생산 가능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시대를 열 차세대 중형위성 2호기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대외적으로 명실상부한 항공우주산업 중추 도시로의 확고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이와 같은 항공·우주산업의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의 터전이 될 인프라 조성과 산업 생태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22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경남항공국가산업 단지는 현재 40%의 공정률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용당 항공MRO산업단지 역시 내년 12월, 2단계 사업이 준공되면 항공산업의 거점단지가 완성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으로 이끌어 낸 「항공부품 제조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은 고사위기에 내몰렸던 항공부품 제조업계에 회생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항공기 부품의 개발과 수출 시 반드시 필요한, 부품 시험·평가·인증을 위한 「항공기 복합재 시험평가 연구동」을 준공하여 우리 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사업들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 상업운영 이후 225만명이 다녀 간 한려 해상 대표 관광상품인 바다케이블카의 명성을 이어나갈,

경남 최초의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이 개장하였고, 편백숲이 우거진 자연휴양림은 바다와는 또 다른 매력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관광단지 내 부지 일부준공을 통해,  
그간 지지부진하던 실안관광지 내 리조트형 호텔 건립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고,

지난 2014년 이후 끊겼던 사천~제주 간 바닷길을  
7년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남~정동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국토  
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사업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동·서 지역을 잇는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사업은 국비 23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사업들은 우리 시의 핵심 사업들로서  
수년 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그 결실을 맺었거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삼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사천시는 유독 시련과 성과가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한 혼잡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정세도 혼돈과 생태계 변화의 소용돌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또한 빠르고 복잡한 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빠르게 극복하여 조기에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하고, 다소 지체되었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은 정상화해야 합니다.

특화된 도시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항공우주 분야와 해양관광 분야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선점해 나가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인구소멸 위기로 다가 온 사회 구조적 변화와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열리는,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수요는 폭발할 것이고, 새로운 민선 시대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어야 할 중요한 해 입니다.

오늘 「2022년 예산안」 을 제출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천」 시대를 열어갈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민생 회복」 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잃어버린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빈틈없는 방역과 의료 대응체제를 갖추고 돌파감염을 막기 위한 백신 부스터샷 접종에 만전을 기해 일상 회복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1억원의 예산으로 노후 시설 보수 등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34억원이 투입되는 삼천포 수산시장 해수공급 사업을 통해 서부 경남 최대·최고의 청정 수산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립과 재기를 위한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무엇보다 고용 안전망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상생형  
맞춤 일자리 지원에 총 56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회복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별화된 비교우위 확보로 「항공·  
우주산업의 재도약」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먼저 2022년 연말까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와  
용당 항공MRO 산업단지 2단계를 완공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중심 클러스터로 우뚝 서겠습니다.

정부의 MRO이원화 육성 기조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산업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항공서비스(KAEMS)와의 협력과 지원을 확대하여  
항공MRO 산업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부품 검·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에 이어 항공업체의 긴급 지원사업도 내년까지 이어 가겠으며,

중소 항공부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항공부품 제조업과 항공산업 간 밸류-체인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내년 항공산업이 전(全) 세계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에 대비하여 부품업체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우리 시 「드론 실증도시 선정」을 계기로 항공기의 미래인 무인기와 드론 산업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과 자연의 가치에 집중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5개의 섬을 연결하는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바다의 가치를 재해석한 획기적 관광자원으로, 내년에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아쿠아리움, 편백휴양림은 다시 관광객이 넘치도록 마케팅을 강화하고,

실안관광단지 완성에 방점을 찍을 리조트형 호텔 건립사업은 1,15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자 유치사업으로 2022년 착공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新) 관광자원으로 각광받는 관상어 육성사업은 56억원이 투입되는 센터 건립을 내년 초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공단과의 협업으로 추진하는 국립공원사무소 청사는 국비 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고,

해양안전 체험센터는 21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내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의 힐링 관광지로 선정되며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비토섬의 쪽사곶 갯벌 체험장과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44억원이 투입되는 역점사업으로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120억원이 투입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인 사천에어로 스페이스 파크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에 본격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 인프라를 확장하게 될  
「대규모 SOC 조성 성과 도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삼천포 구(舊)역사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업·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136억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인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분양공고를 하고 2023년 상반기에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그린파워와 약 5년간의 협상으로 이끌어 낸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1,163억원이 투입되는 사남~정동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492억원이 투입되는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사업은,

조속히 추진되도록 국비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인 「바다마실 삼천포愛 빠지다」 와 「큰고을 대방굴항」 사업은 내년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와 여가 선용의 저변을 확대할 사천시 최초의 시립도서관과 생활밀착형 국민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내년 착공하여 2023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 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어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더욱 꼼꼼하게 추진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복지사각지대에 고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복지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고,

ICT와 연계한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수요에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시책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빠짐없이 우선적으로 챙길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로 양성평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워킹맘을 위한 보육시설 이용 확대와 여성 취업지원,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 확보」에 전력을 쏟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인 우리 시의 실정을 반영하여 생활 밀착형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고혈압·당뇨병 Total 관리를 통해 시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기억보따리 인지강화 사업, 인공지능 로봇 기반 치매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치매극복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의 침체와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어촌뉴딜300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농·어업과 ICT(정보통신기술)과의 접목으로 농어촌의 혁신 역량과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재 양성을 위해 명품학교 육성과 글로벌 캠프, 해외문화탐방,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지원 등 교육투자를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자 공공 Wi-Fi망을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 3D 공간정보 구축사업과 자율주행의 필요조건이 될 측량 기준점 일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진한 「대형 정책사업 재검증」을 통해 시정 방향과 목표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나 대형 시설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이 부진하거나, 당시와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되어 재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은 면밀히 검증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전략사업 집중도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삼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4억원, 18% 증가한 8,250억원으로 대폭 확장하여 편성했습니다.



이는 예산규모의 85%를 의존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든든한 지원을 동력 삼아,

전(준) 직원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얻어낸 우리 모두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월예산을 포함한 재정규모 1조원 시대를 열고 향후 몇 년 이내에 순 예산규모 1조원 시대에 안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 「다시 새로운 사천」을 준비하는 내년도 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안전망 확보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규모의 26%에 달하는 2,1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시 미래 전략산업인 항공산업의 거점이 될 MRO 산업단지 등의 조성과 도시 인프라 구축에 1,371억원을 편성했고,

문화예술·관광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92억원이 증액된 433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농·어촌의 고령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241억원 증액한 1,05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과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분야에는 886억원, 시민의 생명을 지킬 재난안전 분야에 206억원, 미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분야에 143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분야에 164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3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상의 안전, 풍요로운 문화와 복지,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현 시대를 극복하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희망과 염원을 담아 「다시 새로운 사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단, 한푼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우선 순위,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성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고 길게 드리웠던 코로나의 그늘에서 벗어날 희망이 비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은 내년 초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시민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마지막 고삐를 당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천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직 시민들의 힘과 응원을 믿고 우리 시 전략산업 분야의 차별화된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시민의 삶은 더욱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사천시는 시련과 도전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길고도 힘든 이 여정은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헤쳐 나가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우리 시  
현안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임인년(壬寅年)으로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흑호(黑虎)는 강하고 열정적이며 큰 야망을 기필코 이루어낸다고 합니다.

꿈 꾸시는 큰 야망, 내년에는 꼭 이루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민희